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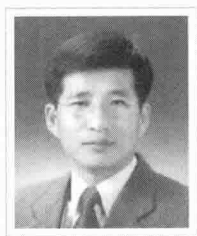
외래 잡초 발생 및 방제전략(3)

단풍잎돼지풀

(giant ragweed)

단풍잎돼지풀(학명 : *Ambrosia trifida*, 영명 : giant ragweed)은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국화과 일년생잡초로 197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성 외래잡초이다. 주로 경기도의 연천, 파주, 의정부 그리고 강원도의 춘천, 화천 등지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01년도에 환경부에서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과 같이 '생태계 위해 외래잡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강가, 하천가, 길가, 과수원, 쓰레기장 등에 많이 발생하고 서울 근교의 하천부지와 경기 북부 임진강변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단풍잎돼지풀은 줄기는 곧게 서며 초장은 보통은 1.5m 내외이다. 그러나 토양이 비옥하고 수분이 알맞은 곳에서는 6m까지 생육할 수 있고 많은 가지들 치며 거친 털이 있다. 잎은 마주나기를 하고 양면에 센 털이 있으며 단풍나무 잎처럼 3~5개로 깊게 갈라진다. 갈라진 조각은 타원모양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이인용
농촌진흥청 잡초관리과

자웅동주(雌雄同株)식물로서 암꽃과 수꽃이 다르다. 보통 7~9월에 녹색으로 꽃이 피고, 화서의 위쪽 약 2/3가 수꽃이고, 아래 쪽 약 1/3이 암꽃이다. 위에 있는 수꽃에서 꽃가루가 떨어지기도 전에 암술머리는 앞으로 쪽 뺀어 꽃가루를 받아들일

자세를 취한다. 9월하순부터 보통 1주당 200여개의 종자를 생산한다.

종자는 휴면성이 있으며, 발아에는 20~30℃의 변온이 유효하나 흙속에서 종자의 수명은 20여년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발아심도는 2cm이나 16cm의 깊이에서도 발아하는데 광범위한 토양수분조건에서 발아한다.

단풍잎돼지풀의 종자는 크고 발아가 빠르며 초기생장이 왕성하고, 키와 잎도 크기 때문에 햇빛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때문에 옆에 있는 식물이나 작물은 빛을 받지 못하여 자라지 못하고 뿌리에서는 다른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타감물질도 분비한다. 또 단풍잎돼지풀의 꽃가루는 알레르겐(allergen)을



단풍잎돼지풀



생육초기



강변 잔재물



군락상태

많이 함유하고 있어 꽃가루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으며, 비염이나 심하면 천식까지 일으킨다.

단풍잎돼지풀이 농경지에 발생할 경우에는 토양처리제로 방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단풍잎돼지풀은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발생하여 제초제로 방제가 쉽지 않다. 도로변에 발생한 단풍잎돼지풀은 생육 왕성기인 7월 중순이후에 지표면으로부터 15cm 이하(마디 2개)의 높이로 예취하면 재생이 되지 않아 방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생육기 경엽처리제인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액제 또는 메코프로프액제를 4월 상순에 1회 그리고 6월 상순에 1회의 체계처

표 1. 단풍잎돼지풀의 예취시기 및 방법에 따른 재생력('05, 농과원)

예 취 높 이	예취시기 및 재생율(%)			
	7월상순	7월중순	8월상순	8월하순
마디 0개(1cm 미만)	0	0	0	0
마디 1개(2~5cm)	13.0	0	0	0
마디 2개(7~15cm)	25.4	0	0	0
마디 3개(31~45cm)	81.9	16.2	17.8	12.0

표 2. 생육기 경엽처리제 처리에 의한 방제효과('07, 농과원)

제 초 제	사용량 (10a)	처리시기			방제효과 (%)	비 고
		4월상순	5월상순	6월상순		
글루포시네이트	800ml	○	-	-	43	후기발생
암모늄액제	800ml	○	-	○	97	-
메코프로프액제	500ml	○	-	-	23	후기발생
	500ml	○	-	○	98	-

리하면 방제할 수 있다. 경엽처리제를 살포할 때는 주위의 농작물에 약제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